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대외협력정보팀	직 위	연 구 원	성 명	윤현주
출장기간	2010. 5. 9 (일) – 16 (일)		출장지	인도네시아 (Indonesia)		
출장목적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아시아재단 개발협력 펠로십 참여					
경비부담	아시아 재단					
주최기관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방문국	방문기관	면담자		면담내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학교, 정치·사회과학부 정치학연구소	○ 시리 에코 부디 와르다 니 교수 ○ 아니 소엣집토 연구원		○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 한 인도네시아 여성단체 및 연구소의 노력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지부	○ 한나 샤프리오 젠더와 여성의 참여 프로 그램 국장 ○ 헤티파 사이푸디안 (여) 인도네시아 국회 의원 ○ 데스티 물디자나 (여) 인도네시아 국가여성폭력 철폐위원회, 부위원장		○ 아시아재단 사업소개 ○ 인도네시아 여성국회의원 의 활동 분야 ○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제 도의 필요성 ○ 여성차별철폐 및 폭력 방 지 ○ 아체지역의 상황		
	아시아개발은행 (ADB)	○ 이부 롤리 마리안티 젠더 스페셜리스트		○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협 력사업/차관과 젠더		
	인도네시아 여성역량 강화 및 아동보호부 (인도네시아 여성부)	○ 이부 시리 단티 만와르 인도네시아 여성부 차관		○ 여성부의 기능 및 역할		
	캐나다 개발원조기구 (CIDA)	○ 프랜시스카 인다르시아 니 민간부문개발 프로그램 담당자		○ 캐나다 개발원조기구의 젠더와 개발협력사업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 최성호 소장		○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사 업 및 원조 체계		

방문기관	연담자	연담내용
사투나마	○ 프랜스 이크민 대표	○ 사투나마의 사업과 개발협력사업의 국제적 주제인 원조효과성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현실
지진 복구 센터	반톨지역의 부족 여성 리더 그룹 2 개 및 청년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 (FKKP, LKP, Radio Sadewa)	○ 외국 개발원조 NGO 의 지원을 받아 실시 되고 있는 반톨지역의 산악지역 부족 여성역량강화 사업 - 소자본대출 및 보건사업 ○ 지역민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
인도네시아 여성 연대	○ 디안 카르티카사리 대표	○ 여성역량강화 및 인권, 기본 생활권 등.
여성의 대안교육 모임(카팔 프렘푸안)	○ 얀티 무체타르 대표	○ 빈곤, 시리아법, 여성
여성정의협의회	○ 랏나 바타라 문티 (여)	○ 여성 노동자 보호 ○ 이주노동자 보호 ○ 취약계층 여성과 일부 다체제 여성의 인권

상세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0.

출장복명자: 윤현주

아시아재단 단기 연수 출장 보고서

인도네시아

2010. 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 차

I.	방문 개요	5
1.	방문 배경 및 목적	5
2.	인도네시아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중요성.....	5
3.	세부 일정.....	6
II.	주요 방문 기관 및 논의 내용	8
1.	인도네시아 대학교 사회 및 정치학과와 정치학 연구소	8
2.	아시아 재단	10
3.	아시아개발은행 (ADB)	16
4.	인도네시아 여성부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 보호부)	18
5.	캐나다 개발원조기구 (CIDA)	20
6.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22

I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및 장소: 2010. 5. 9 (일) – 16 (일), 인도네시아
 - 사전 교육: 2010.5.6 (목) 15:00 – 20:00,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 서울 출국: 2010.5.9 (일) 16:45, KE627
 - 자카르타 출국: '10.5.15(토) 22:05, KE628 (익일 07:05 인천공항 도착)
- 참석자:
 - 본원 참석자: 윤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체 참석자: 임희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양연수 (메디피스), 강현정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김소미 (UNESCO 한국위원회), 이경숙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수석사업부장: 인솔자)

1

방문 배경 및 목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한국지부는 지난 3월 3차에 걸친 업무 협의를 통해, 2010년 3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함.
 - 1차: 인도네시아 여성지도자 한국 방문
 - 2차: 아시아재단 개발협력 펠로십 참여
 - 3차: 국제회의 개최
- 인도네시아 여성지도자 한국 초청방문은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와 1차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인도네시아 여성지도자 선진사례 연구방문단은 방문 기간 동안 “여성역량강화”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본원의 여성정책연구 및 성과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실시함.
- 2차 사업으로 아시아재단의 개발협력 펠로십 프로그램에 참여함. 이를 통해 본원을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젠더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또한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학습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함.
- 3차 사업은 2010년 아시아재단의 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를 통해 추진할 예정. 구체내용 추후 논의.

2

인도네시아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중요성

-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인종/종교/정치적 상황 등을 통해 볼 수 있음. 즉, 아시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다양성과 공통성: 인종과 문화, 종교가 다양한 아시아의 환경과

역사적으로도 식민 혹은 전쟁을 겪은 경험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점을 공유 하고 있으며, 새천년개발계획(MDG)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원조/개발협력의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임.

○ 인도네시아는 저-중소득국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부터 양성평등 및 젠더부분에 대한 노력의 의지가 있는 국가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미 성인지 예산 및 개발협력을 위한 성주류화 논의와 관련하여 본원과의 연구교류경험이 있음 (2009 아태개발협력포럼)

○ 또한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다자간/양자간 국제 공여기구 (UN, WB, CIDA, KOICA 등)들이 소재해 있으며,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

- 한국 ODA 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중점협력국가.
- 분쟁과 갈등의 근원인 다양한 종교/인종/천연자원이 있는 나라.
- 선진사례 연구 및 현장연구에 매우 중요한 나라.

□ 인종/문화/정치/종교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여성들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사회/UN/양자공여기구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볼 수 있는 현장.

○ 개발에서의 중요한 이슈들과 범분야적 이슈들에 대한 현장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종교와 인종, 분쟁과 평화 그리고 독재와 민주적 변화 등 복잡 다양한 이슈들을 관찰 할 수 있는 나라.



2010. 05. 09 (일): 자카르타	20:35 자카르타 도착,
2010. 05. 10 (월): 자카르타	<p>10:00 – 12:00 인도네시아 대학교 사회 및 정치학과</p> <p>14.30 – 16.00 워크숍 (인도네시아 젠더 이슈: 여성에 대한 폭력)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지부 사무소</p> <p>Sita Aripurnami , Women Research Institute Hesti Murdijana ,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KOMNAS Perempuan)</p> <p>16.30 – 18.00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지부관련 오리엔테이션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지부 사무소</p> <p>Sandra Hamid – Sr. Director for Program Erman Rahman – Director Economy Program Leopold Sudaryono – Law Program Coordinator</p>
2010. 05. 11 (화): 자카르타	<p>(양자간 개발 기구 방문)</p> <p>09.00 – 10.30 아시아개발은행(ADB) Ibu Rully Marianti – Gender Specialist</p> <p>11.00 – 11.30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여성부) at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 Child Protection office with Ibu Sri Danty Anwar – Deputy Ministry</p> <p>14.00 – 15.00 캐나다 개발원조기구(CIDA) Fransisca Indarsiani</p> <p>16.00 – 18.00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p>
2010. 05. 12 (수): 족 자카르타	<p>(족자카르타 지역 지진 피해 현장 방문)</p> <p>08:00 – 09:00 이동 (GA 204, 자카르타 -> 족자카르타)</p> <p>09.00 족자카르타 도착</p> <p>09.30 – 10.30 사투나마 (Satunama)</p> <p>10:30 – 13:00 이동 (족자카르타 -> 반톨지역)</p> <p>13.00 – 15.30 지진 복구 센터 (Visit Earthquake Rehabilitation Center)</p> <p>15.30 – 18:00 이동 (반톨지역 -> 족자카르타)</p>

2010. 05. 13 (목):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경 공휴일 - 족자카르타 지역 탐방 및 보도부두르 불탑 방문 16.05 - 17:00 이동 (GA 213, 족자카르타 -> 자카르타) 17.00 자카르타 도착
2010. 05.14 (금): 자카르타	09.30 - 10.00 인도네시아 여성 연대 (KPI) 10:30 - 12:00 여성 대안 교육 모임 (KAPAL Perempuan) 13.30 - 15.00 법적도움센터(LBH APIK) Ratna Batara Munti 16.00 - 19:00 Wrap up & review session
2010. 05.15 (토): 자카르타	10.00 자유시간 22:05 서울출발 (KE628)
2010. 05. 16 (일): 서울도착	07:05 인천공항 도착

II

주요 방문 기관 및 논의 내용

1

인도네시아 대학교 사회 및 정치학과의 정치학 연구소

- 정치학연구소 (Center for Political Studies)는 1994년 인도네시아 대학교 내에 설립 됨. 인도네시아의 정치 및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연구, 출판,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활동 하고 있음. 최근 연구로써 선거개혁 (electoral reform)과 여성의 정치 참여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그리고 UNDP와의 사업경험이 있음.

- NDI와 IRI: 미국 비영리/비정부 단체로써 민주적 정치 참여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음. 정치적 관점: NDI (민주당에 근접), IRI (공화당에 근접)

○ 주요 논의 내용

-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정치 발전 그리고 여성운동에 대한 개관.
-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한국보다 높음. 약 516명의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중에서 102명이 여성으로 약 18%를 차지함. 30%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여성

의 정치참여를 위해 아시아재단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능력있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돕고, 각 정당별로 여성후보 및 당선되는 여성 후보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선거 때마다 관련된 내용이 주요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 여성의 정치 참여 증가를 위해 “여성들이 더러운 주방(= 부정부패한 정치적 상황/현장)을 청소하겠다!” 라는 비유적 표현들이 슬로건으로 사용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여성 정치참여에서 현재 중요한 부분은 18%를 차지하는 여성정치인 대부분이 정치분야에 갓 입문한 상태라는 점. 즉,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성 정치인들 BACK LASH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18%의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을 강화 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 특히 정당 별 여성의 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 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록된 여성 정치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더 많은 여성 후보를 추천해 올려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여전히 “여성만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있음.



○ 아시아 재단 소개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1954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재단으로, 아시아 국가의 개발(development)과 아시아-미국의 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비정부/비영리 재단.

아시아재단 한국지부는 같은 해인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전후 한국의 정부를 재정 비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사회의 노력을 지원해왔음. 초창기 지원 사업은 인쇄 용지 공급, 근대 화랑 설립, 스포츠 발전 등과 같은 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이후 정부와 사회기관의 제도 확립, 언론 및 정치 외교 전문가의 미국 연수, 여성권익향상 등 한국의 사회/문화적 역량강화 사업에 더욱 역점을 둠.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과 함께 아시아 재단의 사업도 같이 변화해 옴. 현재 아시아 재단 한국지부의 주력 분야: 한-미 관계와 한-아시아 관계, 아태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 확장, 북한 경제 개방 지원. 또한 국제교류, 정책 세미나,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정부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하고 있음.

아시아 재단 인도네시아 (Indonesia)지부는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식민통치를 벗어난 직후 위태로운 국가적 상태에서부터, 과도기적 단계를 넘어 현재의 활발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정착에 함께해 왔음. 정부기관, 시민사회기구, 민간 부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더 나은 민주적 국가로의 성장과,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빈곤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분권적 통치 제도의 정비(governance) 및 빈곤퇴치(poverty reduction) 등의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방자치제(Decentralization)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 지방의 법제도 및 법집행기관의 역량강화, 지방 경제 개혁 지원, 빈곤층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여성 역할/역량 강화, 공정한 민주적 선거 지원, 지방 정부의 예산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하는 활동 및 사업을 하고 있음.

○ 주요 논의 내용

아시아재단에서의 워크숍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에 대해 듣고, 폭력방지와 관련된 기재마련을 위해 행해지는 노력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직속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모시고 진행됨. 동시에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지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시타 아리푸르나미 (Sita Aripurnami)

여성연구소 (Women Research Institute) 소속 및 여성 국회의원,

헤스티 무르디야나 (Hesti Murdijana)

여성차별철폐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 KOMNAS Perempuan)

■ 두 전문가는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하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

원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공유했으며,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성별분리 통계, 성인지 예산의 정부 부처에서의 실행 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전하였고, 현재 인도네시아 국회 및 범-인도네시아 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전함.

교육, 젠더, 언어, 그리고 정부 예산의 사용

인도네시아는 언어와 민족, 문화가 다양함. 그러나 약 30%의 학생들이 매년 국가에서 실행하는 시험에 낙방하거나 매우 저조한 실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해 선생의 자질 문제를 논의 하는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결국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화 된 시험제도 및 실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인도네시아의 젠더 상황은 종교/문화적 이유로 인해, 여아/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에 제약이 있음. 특히 교육에서 여아/남아의 실태 조사가 되어있지 않으며,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교육분야에서의 젠더 상황 및 여아의 교육참여/발달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

인도네시아어로 청년(Youth)라는 단어는 “젊은 남자 (young man)”을 의미함. 따라서, 스포츠를 거론할 때 대개 남성적 스포츠가 논의가 됨. 즉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그 대표성이 남성에게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필요와 남-여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함.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조사하기 원하며,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정부 예산 및 시(city)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시각의 도입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됨.

지방 분권 (Decentralization)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 당시 경험했던 독재와 과도한 중앙집권식 통치 방식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고, 또한 1997-1998년 홍콩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을 시작함.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1999년 “지방자치제”관련 법 (No. 22)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균형”관련 법 (No. 25)이 제정됨. 이 관련 법들은 2001년 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1년 정도의 과도기적 시험단계를 통해 실행이 됨. 2004년에는 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진행됨. 그 실례로 3당 체제에서 다당 체제로 전환됨. 지방정부의 수장들에 대한 직접 선거제 실시 (도지사, 시장, 구청장급). 지방분권의 목적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재부분에 대한 질적

항상과 지역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 동시에 각각의 독립된 지방자치체로서 중앙정부와의 견제 및 균형을 이룩하기 위함.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담당하는 조직이자,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 지방자치제를 통해 각 지방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법의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력을 가짐. 예산의 집행은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각 지방자치체의 소득창출은 엄격히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음. 또한 더 나아가, 마을 별 자치체가 구성되어 마을 의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지방정부 내에서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다양화/분업화 됨.

중앙정부의 기능 (6개의 주요 기능)	중앙 및 지방 정부 공통사항	
	의무사항 (26개의 기본 공공 서비스)	선택사항 (8개의 경제 부분)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 국토 방위 (National Defense) 재정 및 예산 (Monetary and fiscal) 법 (Judicial) 외교 (Foreign Affairs) 종교 (Religious Affairs)	보건 (Health) 교육 (Education) 인프라 (Infrastructure) 환경 (Environment) 공공재 (Public Works) 교통 (Transportation) 식량 (Food Security) 등, 총 26개 분야.	농업 (Agriculture) 해양 및 수산업 (Marine & Fisheries) 관광 (Tourism) 무역 (Trade) 임업 (Forestry) 에너지 및 천연 자원 (Energy & Natural Resources) 산업 (Industry) 이주/이민 (Trans-migration)

예) 교육사업분야에 있어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도정부 (Provincial Government)	구/시정부 (District/Municipal Government)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확충	국제적 교육수준에 맞춘 교사의 모집 및 채용 등.	초등 및 중등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사 모집 및 채용. 비정규 교육 기관 교사 모집 및 채용 등.

인도네시아의 여성과 참여

지방분권제도는 중앙집권 방식에 비해 여성친화적으로 인식됨. 즉,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지방 정부에 찾아가 소통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의사결정단계에 여성의 참여 및 여성으로써 지방정부의 중요 요직에 진출한 경우는 매우 적은 실정. 이는 지방정부에서의 의사결정방식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 즉 지역공동체/기관의 수장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 남아 있기 때문.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적 역할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많은 여성들은, 특히 지방의 여성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 스스로의 필요 보다는 남성과 가족의 필요가 늘 우선하는 환경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스스로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실정.

여성의 권익 신장과 정치/경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써의 참여를 위해 옹호 및 의식 개선사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재를 만들어내고 및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는 인도네시아의 여성부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인도네시아의 여성부는 목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 확보가 되고 있지 않음. 여성을 보호 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기재의 마련 역시 매우 시급한 문제.

현재 인도네시아 여성국회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과 같은 성인지적인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기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8년 5월 13일~15일에 자행되었던 폭동시위에서 중국계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성적 폭력사건을 계기로 하여 발족하게 됨.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 성장과 부를 획득한 화교들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컸으며, 재산을 약탈당하고,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약 2천여명이 살해 되고, 수백명의 여성이 집단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권의 군사 배후세력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이 폭동은, 민중의 민주화 항쟁으로도 불리며, 학생과 여성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결국 수하르토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계기가 됨.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써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대신하지 못함. 대통령 직속기관이 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함.

인도네시아는 각 지방별로 여성에 대한 규범과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지역법이 있음. 예를 들어 반드시 여성은 사리(Sari)를 머리에 써야 하고, 밤에는 거리를 걸어서는 안됨(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은 모두 성매매 산업 종사자로 간주) 등과 같은 법이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 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다른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대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여성가장의 경우, 법적 가장으로도 인정되지 않아서 정부의 통계시스템에도 포함되지 않음. 문화적 근거를 둔 도덕적 판단 기준이라는 잣대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와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음.

교육의 혜택에 있어서도, 문화/종교/사회적 이유로 인해 여아에 대한 교육투자는 매우 저조하며, 지방에서의 경우 특히 여아 조혼 풍습과 그에 따른 임신으로 인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오히려 남아아이는 학교에 보내면 임신 및 결혼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단절과 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이며, 이에 남아에 대한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학생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열의 및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여 자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여성인권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며, 강화된 노동법의 재정을 통해 취약한 여성의 지위와 아동에 대한 착취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듯,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5월 8일은 여성 노동자의 날로 지정됨. 분쟁지역이며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도 유명한 아체(Aceh)지역은 격은 뿌리깊은 이슬람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아체지역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제약을 통해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적 상황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감시 및 옹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국가차원의 성인지예산 실행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는 이미 채택된 바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협력이 저조하여, 그 실행에 있어서는 힘든 상황.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지부의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우선 아시아 재단 내에서 직원들의 성인지적 관점 확립을 위한 이해 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이 2년에 한번씩 실시되고 있음.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지부는 아시아재단 가운데 유일하게 젠더 부서가 있는 지부임.

성인지 예산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행에 대한 권고 및 기술적 지원을 인도네시아 정부 및 관련 부처에 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

- 인도네시아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로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지역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맞춘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함. 예를 들어, 종교지도자들을 접촉하여, 여성노동자 및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재를 소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를 하기 전에 종교지도자들에게 와서 축복을 부탁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들은 종교지도자를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고,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듣곤 함. 아시아 재단은 종교지도자들에게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떠한 지원단체/방법이 있는지 알려주고, 여권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교육을 시키는 등, 이주노동자로서 당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본 사업을 통해 전체 이주노동자 중에서 여성을 포함한 약 7백3십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 (2백3십만 명의 정부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여)에게 프로그램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음.

- **옹호 및 지원 활동:**

- 경찰서의 예산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항목을 재정하도록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약 41개의 구 단위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 예산 집행의 좋은 예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 인도네시아는 최근 공기관 정보 공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모니터링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활동.

- **경제발전 지원 사업:**

-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을 지원하는 연구자료 및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동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경제 개발을 위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원스탑(one-stop)서비스 센터를 지방에 개설하고 있음.
- 지방 여성 경제인의 활동을 지원을 위한 소자본 대출 사업: 본 사업의 경우 쓰나미 이후 실시 되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

- 자신이 경작하는 땅에 대한 소유권 획득 지원 사업, 정부의 보건제도가 빈곤층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빈곤층을 위한 예산 확보를 권장하는 활동.

- **연구 및 조사 활동:**

- 정치-경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신뢰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어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 인도네시아 (ADB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1966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창립 멤버 나라. 2009년을 기점으로 ADB는 인도네시아에 약 303개의 차관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미화 총\$250억불에 달하며, 총 504개의 기술적 지원 사업을 통해 미화 총\$2억8천만불에 달하는 지원을 함. 인도네시아는 차관 승인 정도로 봤을 때 ADB의 가장 큰 고객이며, ADB의 기술적 지원사업을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아시아개발은행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에 위치한 ADB본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차관사업결정에 따라 집행과 연락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 논의 내용

- ADB는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걸쳐 8명의 젠더 담당자가 있음. ADB의 젠더 담당자의 역할은 개도국의 차관 신청시, 차관을 통한 사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지원. 한 개도국이 차관을 신청하게 되어, ADB에서 차관 승인이 나게 되면 관련 담당자는 신청 정부의 대표와 차관의 구체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됨. ADB-개도국 정부간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차관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확정이 될 때쯤, 젠더 담당자는 ADB 내에서 해당 차관 담당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요청을 하고, 젠더 관점의 도입을 위한 제안을 하게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원국은 이러한 젠더 관점의 도입에 대하여 환영하지 않고 있으며, ADB내에서도 차관업무 담당자와 젠더 담당자와의 긴밀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젠더 시각의 도입에 대한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젠더 담당자는 차관 도입에 다른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는 수동적으로 받게 됨. 필리핀 ADB 본부의 젠더 담당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업무 지원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차관의 도입과 관련한 젠더관점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ADB 인도네시아의 사업은 2010년 4월 현재, 총 27개의 차관 사업 중 22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54%는 성주류화(GM) 범주(category) 2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주로 교육, 지역 인프라 확충,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음.



- ADB 사업의 성주류화 반영의 범주는 총 4개로 구분이 됨.

	항목	정의
범주 1	양성평등을 직접 주제로 한 사업 (GEN: Gender Equality as a Theme)	<p>○ 사업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련이 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공공재 (교육, 보건, 수자원 공급, 위생 등)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양성간의 불균형의 차를 좁히는 것 -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과 기회를 창출하는 것 (고용의 기회 창출, 재정/금융을 통한 지원, 토지 소유 및 시장 진입 등.) 혹은 도시 및 지방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원 (지방 전기시설 확충, 지방 도로, 친-빈곤층 지원 에너지 분배사업,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 등) - 권익과 필요를 대변하는 것 (의사결정과정 및 그 구조에 대한 개선, 정치적 역량강화, 그리고 고충처리방안에 강구 등) <p>○ 사업계획서의 “성과” 부분에서 사업기획 및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 중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의 기준이 언급되어있고, 성과 측정 지표에 양성평등을 위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p>
범주 2	효과적인 성주류화가 진행되는 사업 (EGM: Effective Gender Mainstreaming)	<p>○ 사업의 성과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가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여성의 권익과 지위 개선을 위해 괄목할만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서비스, 경제적/재정적 자원 및 기회, 기본적 사회 간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 여성의 의견과 권리를 강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 및 성과를 통해 -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것.
범주 3	일정부분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 (SGB: Some Gender Benefits)	<p>○ 어느 정도 여성의 권익과 지위 개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및 관련 기재를 사용한 분석의 부재. <p>○ 여성의 권익과 지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기여부분이 없더라도, 여성에 대한 잠재적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고, 염두한채 진행하는 사업</p>
범주 4	젠더 및 양성평등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음 (No gender elements)	<p>○ 여성의 권익과 지위 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p>

○ 인도네시아 여성부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인도네시아의 여성부는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 보호부”로 불림. 편의상 “여성부”로 지칭함.

여성부는 성인지적 정책과 아동 친화적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와 아동권리의 실현 그리고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4개년 중장기실천계획안을 올해 1월 발표함.

○ 주요 논의 내용

- 여성부 공보담당관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20이 여성이며, 이 숫자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숫자임을 인식한다고 말함. 그러나 여성부는 총 34개의 부처중에서 재정자원의 확보의 순위로 볼 때, 가장 하위에 위치하여 당면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이나 사업을 실행하기엔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
- 여성의 문맹률은 파푸아 지역의 경우 가장 높으며, 약 60%의 여성이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여성화 되고 있는 빈곤의 추세에 따라 여성의 권익 보호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함.
- 여성부는 여성역량강화사업과 아동보호사업 이렇게 2가지 역점 사업을 두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5명의 차관, 즉 경제담당, 사회-정치-법 담당, 여성보호 담당, 아동 보호 담당, 아동역량강화 담당차관을 두고 있음. 또한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타 부처에서의 성인지 예산의 실행에 대해 권장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함.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의 방안 및 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함. 또한 여성부를 잘 아는 현지 전문가를 통해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여성부는 여성역량강화 보다는 아동보호 및 아동인권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됨.)
-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가정적”인 것에 대한 비중이 크게 차지함. 여성 스스로도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주제는 아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아동을 둘러싼 문제:**
인도네시아의 많은 가정에서는 빈곤으로 인해,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생계 마련에 기여하는 문제에 대해 종종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 그러나 아동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보수 혹은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이 안되는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아동의 취약성으로 인해 쉽게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아동 노동에 대한 실태를 추적할만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며,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 최근의 제한적 통계에 따르면 많은 수의 가정에서 10~14세 남아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함.
- 아동 인신매매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 노동과 아동 성매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 인신매매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듯 하였으며,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재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함.
- 출생신고서를 보유하지 않은 아동은 시골지방의 경우 약 71%에 달하며, 도시의 경우 41%에 달함. 전국평균 약 절반이상의 아이들이 출생신고서가 없음. 출생신고서의 작성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우선 부모의 인식에서부터 출발 함. 약 4~7%의 부모는 출생신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함. 부모의 약 1/3은 출생신고를 하기위한 수수료가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음. 출생신고는 정부가 정하는 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나,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실제 관공서에서는 출생신고 접수비 및 처리비를 받고 있음.
- 아동이 불법노동에 투입됨에 따라, 아동이 감옥에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함. 어떠한 이유로 아동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듣기 위해 질문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대신 “아동이 잘못하여 감옥에 간다”는 답변을 들음. 그러나 역시 현지 전문가를 통해 추후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처벌이 그 죄질에 비해 가혹하며, 약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음이 파악됨.
- 여성부 및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소년원 시설 및 관련 규제가 아동 친화적이지 못함에 대한 문제인식은 되고 있음. 교도소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의 출발은 아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함. 그래서 아동 교도소를 교육적 아동 보호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불법 노동에 투입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처벌은 부모가 대신 받는다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를 질문하자,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법률에 대하여 조정중이다”, “법정에서는 아동이든 어른이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이 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함.



○ 캐나다 개발원조기구

CIDA는 캐나다 정부의 원조정책을 실행하는 양자원조기구. CIDA의 인도네시아 지원 사업의 역점 분야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의 관리,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뉜.

○ 주요 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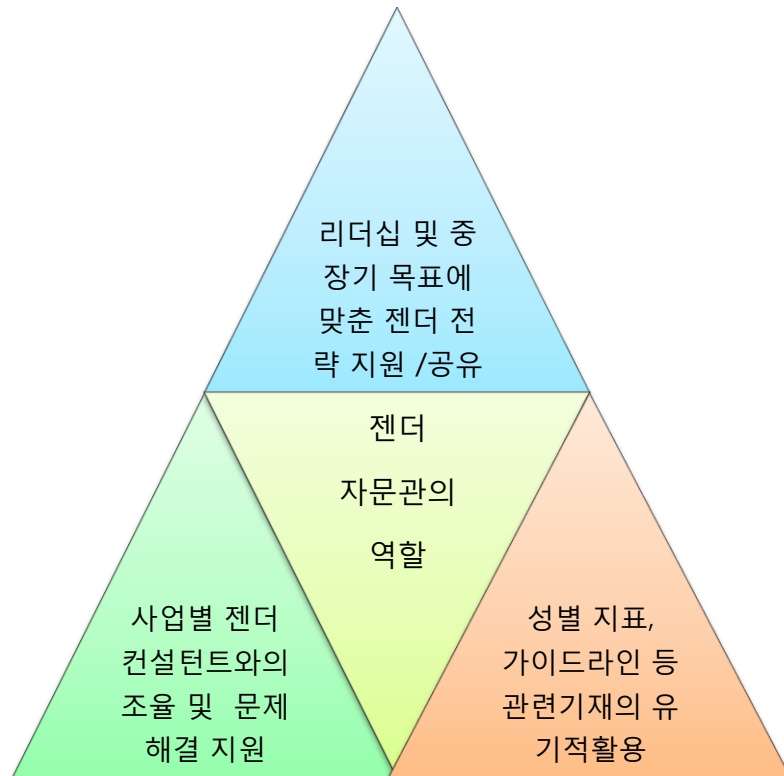
- CIDA 젠더 자문관의 역할 및 업무:

범 분야적 주제로써 젠더 이슈는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관련 지표의 적절한 사용은 사업의 성격과 지향점에 맞추어 잘 선택되어야함.

- 젠더 자문관의 역할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중요한 부분. 따라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고위급 젠더 자문관의 임명을 통해 담보 될 수 있음. 젠더 자문관은 동시에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국제사업(개도국지원사업)에 대하여, 젠더담당관이 배정되며, 젠더 자문관은 CIDA의 전략에 맞추어 젠더 관련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함. 모든 사업 단계에서 젠더 자문관의 참여가 이루어고 있으며, CIDA사업의 수행기관은 계약서 체결 시, 젠더 담당 컨설턴트의 확보 및 젠더 지표에 대한 성과창출에 대한 관련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음. CIDA의 사업은 성과 지향적 사업관리 (Result Based Management)이며, 이는 목표하고자 하는 성과가 반드시 창출 되어야 함을 의미함.





- 젠더 컨설턴트는 젠더자문그룹 (Gender Resource Group)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젠더자문관의 기술적 지원/자문을 받음.

- **젠더 연구 및 조사 활동:**
 인도네시아에서의 젠더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 하고 있음. 특히 CIDA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의 실행을 통해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시민사회의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CIDA의 지원을 받는 정부부처는 젠더 담당자(Gender Focal Point)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CIDA의 젠더 전략은 성주류화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성주류화는 질적향상의 노력이고 과정의 성과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즉, 인도네시아의 경우 남편이 아내가 어떤 일을 해야할지 정하는 방식의 문화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성 주류화의 실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를 위해 젠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적 예산을 통한 성과지향적 사업을 도모하는 훈련/연수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1991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해외 코이카 사무소 중에서 비교적 큰 사무소 중에 하나. 2007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원조 규모는 미화 약 12백만불에 달함. 인도네시아의 발전 전략 및 중점목표에 맞춘 원조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많은 개발의 문제들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논의 내용

- **인도네시아에서의 주요사업:**
-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산림협력 사업을 예로 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하여 한국 최초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시범 조성을 하고 있음.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본 사업을 위해 UN의 승인을 받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산림청과 같이 협력하여 준비하였음.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인도네시아 국가간 양자간 양해각서를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됨. 또한, Bio mess 사업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IT 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IT 지원 사업을 할 예정.
- 지금까지 주로 시설물 건립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통해 원조 활동을 하였으나, 수원국의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와 일정시간이 흐른 후의 하자 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에 대한 힘든 부분이 있음. 따라서 단순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앞으로 인적자원 양성 및 콘텐츠 중심 사업을 늘려갈 계획에 있음. NGO와의 연계사업으로 지진피해지역에서 ‘지구촌 나눔운동’과 같은 한국의 NGO등 약 4개의 기관이 KOICA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음.
- **코이카의 무상원조 지원사업과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CAS(국가지원전략) 전략 국으로써, 한국에게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한 국가.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GDP 규모로 세계12위권까지 성장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BRICs (비OECD-DAC멤버 공여국으로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국민 소득은 미화 약 \$2000에 달하며,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큰 나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재정에 있어서도 다른 주변국가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영국원조기관의 경우 인도네시아 스스로 빈곤퇴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년 내로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너무도 많은 인구와 동에서 서쪽까지 비행시간이 약 7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적 광대함을 들 수 있음.

- 반면 장점은 정부 차원에서 원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는 국제협력과를 통해 부처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경제개발협력부에 제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수원 총괄기구역할을 담당하는 경제개발협력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 예산을 고려한 대 인도네시아 사업 후보를 코이카 본부에 보내어, 수원국의 필요에 맞는 원조 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경제개발협력부의 블루북

<위에 언급된 기관 외에도, 사투나마(Satunama), 반톨지역 소규모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FKKP, LKP, Radio Sadewa), 인도네시아 여성연합 (Indonesian Women Coalition, KPI), 여성 대안교육모임 (Circle of Women's Alternative Education, KAPAL), 법률지원센터 (Legal Aid Center, LBH APIK) 등을 방문함. 대부분의 논의 내용은 위에 언급된 기관과의 논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함>

		
사투나마	반톨지역 소규모 여성단체	인도네시아 여성연합
		
여성 대안 교육 모임	법률지원센터	아시아 재단 인도네시아